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여름 제23호

# 드림제주 21

DREAM JEJU 21





## 감성이 21

마음은 어디서나  
벽 하나를 오른다

무성한 잎 따위로  
앞길 가로 막아도

오늘은  
짙은 화장을 하며  
제 갈 길 가고 있다

강상돈 작  
시집 [느릿느릿 뚜벅뚜벅]에서(2018)

애월읍 봉성리, 제4회 제주시조 지상백일장 당선,  
1998년 현대시조 등단





36

# CONTENT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여름 제23호

|                     |                            |
|---------------------|----------------------------|
| <b>02 사진과 시</b>     | <b>36 제주 속으로</b>           |
| 담쟁이 21              | 36 우리동네 이곳                 |
| <b>04 발간사</b>       | 40 전통시장을 찾아서               |
| 제주는 뜨겁다.            | 44 포커스 제주                  |
|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현실     | 50 가업을 잇는 제주의 맛집           |
| <b>06 제주의 물</b>     | <b>52 제주어로 읽는 산문</b>       |
| 06 제주의 산물(웅천, 샘)    | 52 결핍의 시간들이, 결국은           |
| 현황과 보전              | 희망을 깨워주는 시간이었다             |
| 10 지속가능한 지하수를 위한    | <b>54 의회는 지금</b>           |
| 물관리 통합 모색           | 55 생활 속 조례                 |
| 14 제주도의 물 위기,       | 56 의정 모니터                  |
| 원인은 무엇인가?           | 58 현장에서 답을 찾다              |
| <b>18 제주의 나무</b>    | 59 청탁 금지법 Q&A              |
| 18 제주지역의 보호수,       | 60 의정 칼럼                   |
| 무엇이 문제인가            | <b>64 소확행</b>              |
| 22 한라산 구상나무의        | 64 건강을 지키자                 |
| 실태와 연구동향            | 66 정방하폭                    |
| <b>26 지속 가능한 제주</b> | <b>68 제주의 유산</b>           |
| 26 제주의 지속가능         | 68 당산봉                     |
| 발전을 위한              | <b>72 열린 의회 기고</b>         |
| 협치형 모델 찾는다          | 72 모빌리티 대폭발                |
| 30 2019 지속가능발전      | (Mobility Big Bang)과       |
| 제주 국제컨퍼런스           | 이동의 미래                     |
| 34 제주해안가 점령한 '파래',  | 74 1.5인분의 여행               |
| 해조류 권위자의 제언은?       | <b>76 음식 관련 제주어 속담 이야기</b> |
|                     |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
|                     | <b>78 제주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b>  |
|                     | 배중열                        |



44



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바다,  
제주의 여름을  
에메랄드빛으로  
물들이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u.kr](http://www.council.je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발행일** 2019년(여름호 통권 제23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팩스** 064-741-2329  
**편집인** 오정훈 사무처장  
**편집**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미디어팀  
**디자인 · 인쇄**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064-757-0523





제주는 뜨겁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현실

Jeju is hot. The reality  
of the times given to us

여름이라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열대저기압이 형성되어 태풍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은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륙과 바다, 적도와 극지방과 같이 지역 조건에 따른 열적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태풍이 발생하고,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생깁니다.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해 북반구 지역에서 ‘태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이지만, 이러한 태풍은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주는 ‘태풍’이 오기 전 후텁지근한 열대 저기압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논의, 교통, 오염, 쓰레기 처리, 바다 생태계의 변화 등 태풍과 같은 거대한 변화의 요인이 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도민과 관광객, 도정과 교육행정, 도의회, 그리고 정부가 원한 것이든 아니든 이 바람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으로 인한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몇의 바람은 분명 제주를 힘들게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움이라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태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케네스 미노그 교수는 ‘정치’라는 저서에서 “이제 우리는 국가를 선박(船舶)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의 비유는 바로 ‘거버먼트(government)’라는 단어 뒤에 놓여 있다. 이 단어는 배의 키를 뜻하는 중세 라틴어 ‘구베르나쿨룸(gubernaculum)’에서 왔다. 정치는 국가라는 배를 운항하는 기술이다. 그렇다면 조타수는 무슨 신호에 따라 키를 조종해야 할까?”라는 플라톤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어떤 신호를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선박의 키를 조정할 것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의 산물 (용천, 샘) 현황과 보전

글 / 고병련 공학박사,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산물은 새미와 같은 의미의  
제주어로 살아 있는 물,  
즉 생수(生水)의 의미이다.**

제주도는 숨골의 발달과 함께 빗물이 빠르게 스며들어 하천에 물이 없는 건천으로 물이 귀한 섬이었다. 그리고 섬은 항상 산고심곡수재(山高深谷水災 :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인한 물의 피해)의 피해를 겪으면서 살아 왔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늘 물에 대한 두려움과 갈망으로 물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겼던 삶의 모습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제주 섬 전역에서 솟아나는 샘(용천)인 산물이란 귀한 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란 섬으로, 그리고 그 섬 안에 마을을 만들었다.

제주 섬의 탄생이 1만8천여 신들의 이야기라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섬의 시작은 설촌이란 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도 물에 얽힌 지명과 전설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마을 이름이 물과 관련되어 있고 식수의 해결은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삶의 지혜며 방식으로 산물은 제주사람들의 삶이며 생명수였다.

김녕리 용천수



물은 제주 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 풍요함, 생산성, 역동성, 자비로움, 영원함, 그리고 강인함의 표상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많은 산물들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제주산물이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마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 섬의 산물, 그 가치는 재화적 가치인 '돈'으로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섬에서 1,000여개 이상의 섬이 존재하는 섬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섬 뿐이다. 산물이 있기에 람사르 습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꽃자왈이란 제주만이 갖는 천연 숲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섬의 문명의 시작인 설촌의 역사와 함께 물허벅 문화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절반 이상인 600여 산물들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고 있으며, 찾아 볼 수 있는 물은 400여 개도 채 남아 있지 않다. 산물은 현재 음용수로 이용되는 절물 등 5곳, 공원 활용으로 산지천 등 5곳, 올레길 활용은 거센새미 등 7곳, 담수욕장 활용으로는 오래물 등 10곳, 물맞이로 활용은 소정방물 등 5곳, 빨래터로는 금산물 등 8곳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산물도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가려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산물보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인문학적 관점에서 섬의 물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이다.**

산물은 해안을 따라 환상(環狀)의 형태로 마을을 만들어낸 설촌의 역사이며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산물은 마을의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였으며, 경조사 시 한 집에서 한 허벅씩 물을



물허벅 ©국립민속박물관



물허벅에 식수를 담는  
제주의 옛풍경  
©국립민속박물관

길어다 주는 물부조란 인정어린 풍속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 구덕을 진 아낙의 고된 노동은 제주만이 가진 물허벅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정된 문헌조사는 주민을 상대로 한 현장조사에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고증할 자료가 없는 점이다. 또한 산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연령층이 고령화로 기억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의 어른들이 고령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어 고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섬의 산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찾아야 한다.

### **둘째, 보전을 위해 산물을 지방기념물로 지정하는 제도적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섬의 물'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화로 잊혀지거나 사라져가는 산물을 지켜야 한다. 제주에서 물은 제주를 만든 오랜 삶 속에서 매우 흔하고 일상적인 요소인 동시에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섬에서 물의 성스러움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안의 고리를 재발견 할때 우리는 산물에 대한 감사와 경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대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수량 감소, 수질 악화 등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제도적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옹천수보전조례는 환경·공학적 측면에서의 법적·제도적 규제로 역사·문화적인 면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옛 형태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물을 사적화(지방기념물)하는 문화재적 접근과 보전이 시급하다.

### **셋째, 산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산물이 새롭게 조명되고 섬의 생명수로서 물의 가치가 차세대까지 지속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공학적·인문사회학적 연구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물에 대한 도민들의 주인 의식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는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물 환경 보존마을을 지정하여 산물의 제주 브랜드화에 의한 가치 상승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섬에서 물에 얽힌 역사와 문화 보전을 위한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다양한 아이টে으로 체험과 관광에 접목하여 사람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물(샘)과 관련하여 제주의 물허벅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물로 시작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술 조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산물의 유형별 관리와 기본방안 제시를 위한 관리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

섬의 물은 당 신앙 등 제사의식 등과 관계되고 이 땅의 삶과 생명유지 위해 신성시되어 왔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낚고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으로 바꾸는 재생력과 정화력, 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의 산물(샘)은 수심(水心), 암심(岩心), 지심(地心)이기에 조로록(느끼며), 산도록(만지며), 오도록(마시며)한 청심청수(淸心淸水)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충분하다.



삼양동 옹천수





# 지속가능한 지하수를 위한 물관리 통합 모색

글 /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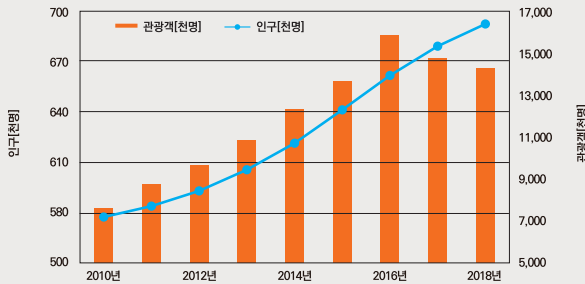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기상이변”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에 세계인구 중 38%가 물 부족에 직면하고, 2050년에는 42%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률이 이전보다 2.7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가뭄 또한 더욱 빈번하게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더욱 예민하기 때문에, 제주 수자원의 이용과 보전 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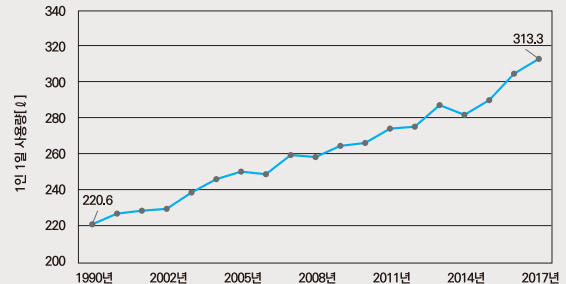
## 첫 번째 요인은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 수요량과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18년 말 기준 제주도 인구는 692,032명으로 최근 5년간 2.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또한 2010년부터 매년 10%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1). 이와 더불어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물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또한 45.7%로 낮아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2). 농업용수는

기온상승으로 농작물 생육기간이 길어지고, 재배작물 또한 아열대 작물로 전환되면서 물 수요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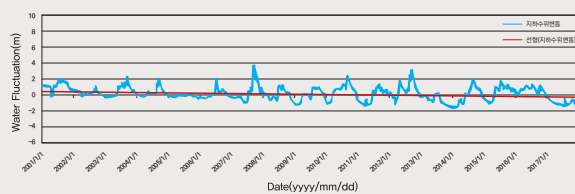
〈그림1〉 연도별 인구 및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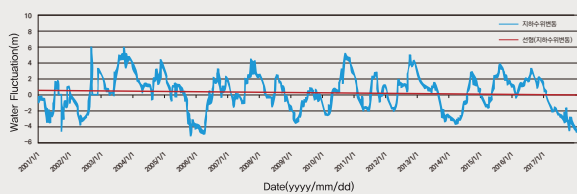
〈그림2〉 연도별 1인 1일 사용량

## 두 번째는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지하수 함양지역 감소와 기후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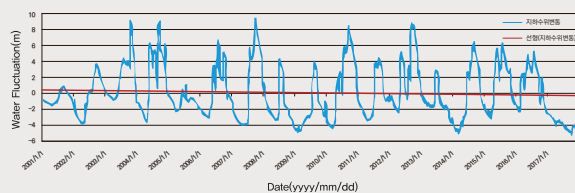
이는 장기간 측정된 지하수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2011년까지는 지역에 따라 감소, 증가, 유지추세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2~2017년 기간에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10년간 가뭄 발생 횟수의 증가, 강우패턴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대비 함양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동일한 양이 비가 내리더라도 수자원 확보에 불리한 여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가뭄은 2013년과 2017년으로 어승생 수원지의 유입량이 줄어 중산간 지역에 격일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등 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는 개발 사업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투수성이 양호한 농경지, 초지,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불투수층이 확대되어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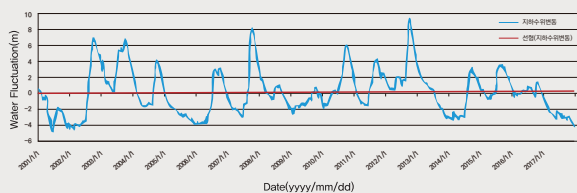
(a) 동부유역



(b) 서부유역



(c) 남부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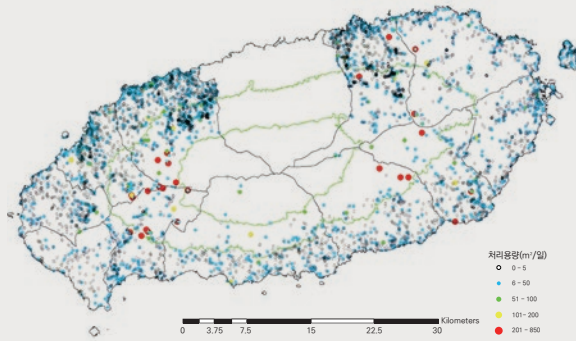
(d) 북부유역

〈그림3〉 2001~2017년 지하수위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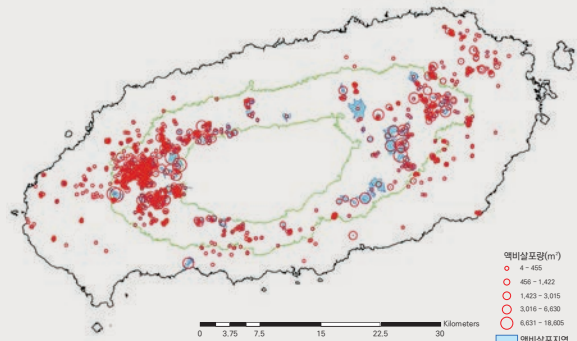


### 세 번째는 지하수 수질오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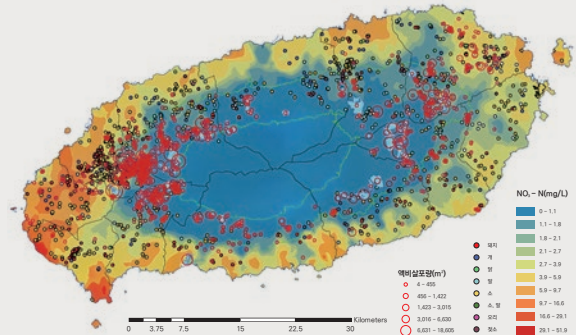
농경지는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에 따라 오염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등 관리가 매우 어렵다. 최근의 비료 사용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배작물별 표준소비량과 상관없이 농가 자체의 관행적인 시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화학비료 판매량과도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또한,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지하침투나, 중산간 지역에서 액비살포는 투수성이 양호한 제주도의 지질특성으로 인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지하수체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 또는 무단배출은 지하수 수질에 치명적이며,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4〉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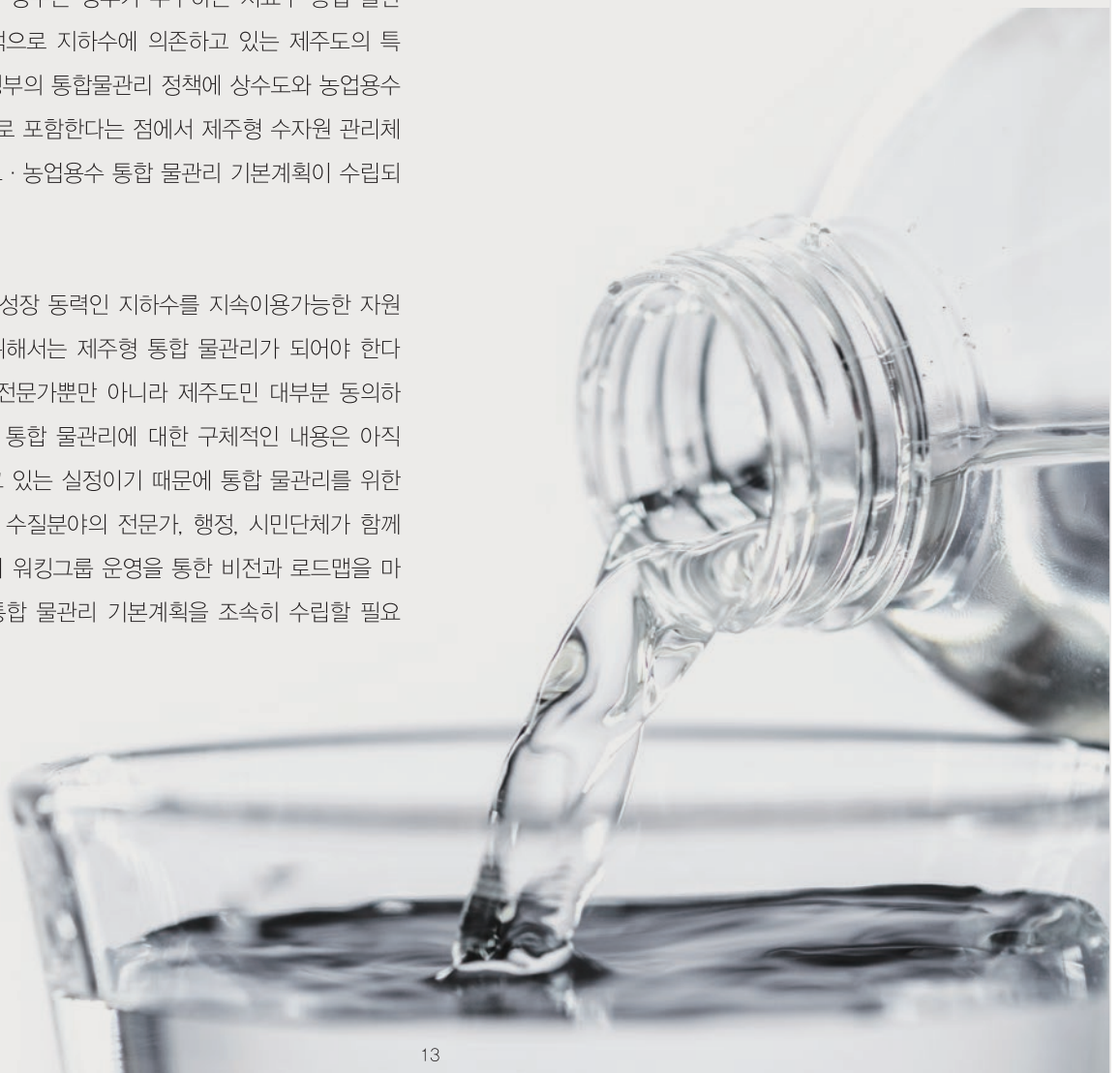
〈그림5〉 액비살포지역과 살포량



6월 이전까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리했던 업무가 6월 5일부터 환경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물관리일원화”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수 분야 또한 물관리일원화로 인해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써 수량·수질의 이원적 관리 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정책의 기념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표수 통합 물관리와는 달리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상수도와 농업용수 통합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주형 수자원 관리체계에 맞는 상수도·농업용수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 미래 성장 동력인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통합 물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자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를 위한 첫 단추로 수량·수질분야의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통합 물관리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함과 더불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제주도의 물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글 /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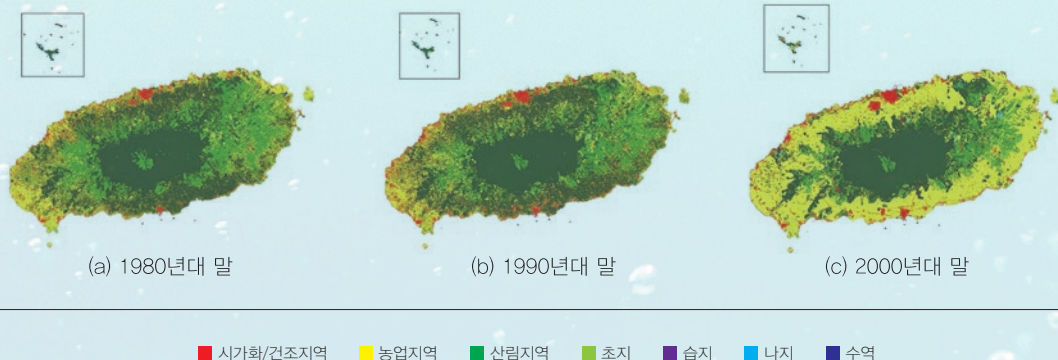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한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 ‘올해 여름은 어떻게 견뎌야 하지?’하는 걱정도 커진다. 더위 이야기가 아니라 물 이야기다. 여름이 되면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더 퍼올려야 하고, 상수도 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하수 발생량도 같이 증가한다. 여름철이 되면서 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물위기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밖에 없다.**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 방류사태로 대표되는 하수대란, 2017년 중산간지역 35일간의 제한급수의 상수도대란과 지하수 위 최저치 하강과 염분검출로 드러난 지하수 대란이 발생하였다. 2018년은 신화월드의 하수 역류사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졌다. 신화월드의 하수 역류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하수처리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

1980~2000년대 토지피복도(대분류)



자료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egis.me.go.kr>)



하여 거꾸로 역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돌출되는 최근의 상황은 지구상 어느 곳보다, 제주의 물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제주의 물위기의 근본 원인은 난개발이다.

난개발은 쓰레기, 하수 처리 등 용량에 근거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처리시설이 이미 포화가 돼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남발하였다. 개발로 인해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면적이 점차 줄어들며,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든다. 또한 난개발로 인해 숙박시설 등이 증가하면서 물사용량이 증가한다.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태 이후, 계속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상황에서도 원희룡 도정은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과 타운하우스 허가를 남발하였다. 원희

룡 도정은 겉으로는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며 난개발을 막는 정책을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숙박시설과 타운하우스 등을 하수처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하였다. 난개발을 교묘히 감추었을 뿐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제주도정의 물 위기에 대해 끊임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호도하며, 정작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상수도 제한급수의 상황에서도 수도법에 정해진 의무절수시설(10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절수설비를 하지 않은 곳을 단속하여 위반하였을 때, 마땅히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단 한번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다. 반면 경로당 등에 절수설비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베풀기 행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호텔과 같은 곳은 지하수까지 뿔아 쓰면서 물 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돕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의 행정이다.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3항에 따른 절수설비 미 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 구분     | 지도점검 건수 | 비고                             |
|--------|---------|--------------------------------|
| 2016년도 | -       | -                              |
| 2015년도 | 無       | 설치 협조 공문 발송 3건(숙박업, 목욕업, 행정기관) |
| 2014년도 |         | 설치 협조 공문 발송 1건(행정기관)           |
| 2013년도 | -       | 설치 협조 공문 발송 1건(행정기관)           |







기후변화로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지하수 함양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하여 사라지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반대로 땅 속으로 침투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든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이 증가하고 있다. 홍수 시에는 물이 천천히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고, 하천을 통해 급히 바다로 빠져 나간다. 이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하수 함양률의 감소는 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로 지하수 함양량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지하수 함양률 기준으로 이용량을 정하고 있다.

### 전지구적인 문제이자 제주의 당면한 가장 큰문제가 물문제다.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물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물순환기본계획과 기본조례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물순환의 관점에서 물문제에 접근하는 점과 계획적으로 대처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지만, 강도가 낮은 권고 수준의 대응과 지원 위주의 집행 계획,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등은 걸치레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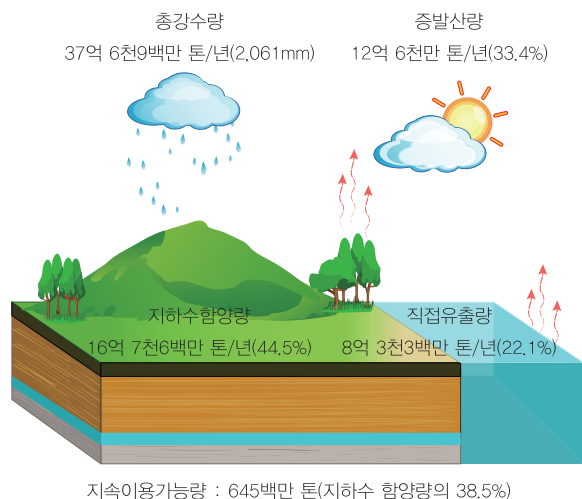
물순환 기본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 물순환 기본조례는 물순환 관련된 빗물이용이나 절수관련 계획, 저영향개발기법, 중수도 이용, 하수재처리 사용,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모니터링 등 관련된 계획이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물순환 관련 행정이 집중력 있고 체계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조례의 내용에는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 그 이유로 지하수관리조례에 빗물이용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영향개발기법만 기본조례에 넣고 있는 것이다.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체계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순환 관련 내용들을 모아 물순환 기본조례에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서 명확하게 집행체계를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아무리 물문제가 시급하게 대응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지만 제주도민과 함께해야 할 과정이다. 물순환 기본조례의 입법과정과 물순환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소통하고, 보완해야 한다. 쓰레기 요일제 배출처럼 행정이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오라는 과거 행정의 방식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토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도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태에서부터 제주의 물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생각으로 절수사업과 물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해오고 있다. 부디 이번 물순환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을 통하여 제주의 물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물문제와 해법에 대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안한다면 물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제주의 물수지 현황



# 제주지역의 보호수, 무엇이 문제인가

글 / 김찬수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사진 / 픽스스튜디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조례는 보호수를 100년 이상 된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수령이 500년 이상인 것은 도나무, 300년 이상은 군나무, 200년 이상은 면나무, 100년 이상의 것은 마을나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한 보호수가 현재 전국적으로 9,400여 그루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주도 116그루, 서귀포시 42그루로 모두 158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수종별로는 팽나무가 99그루로 가장 많으며 곰솔 32그루, 푸조나무 5그루, 동백나무 및 후박나무 각각 4그루, 구실잣밤나무 3그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보호수의 지정 관리 등은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1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2항에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월 8일 상당 부분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13조 1항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북촌리 팽나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지정 사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등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같은 13종의 5(보호수 심의위원회)항을 추가하여 관리를 현저히 강화했다. 이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룬다.

이 개정 법률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첫째는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의 전문을 개정하여 노거수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라고 하던 것을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노거수라고 하면 단지 노령의 나무, 큰 나



- 1 성읍민속마을 팽나무
- 2 상가리 팽나무
- 3 북촌리 팽나무
- 4 동복리 팽나무





무, 희귀한 나무라고 인식하기 쉬운 정의에서 나이가 많지 않고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희귀하지도 않다하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조문을 전문 개정한 것 외에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의 조문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호수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는 보호 관리를 현저히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는 보호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물론 앞서 보호 관리의 강화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서 보호수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조례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노거수의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준은 과거 산림청이 정했던 것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게 많다. 현재 보호수 158본 중 팽나무가 99본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록이 잘 검토되지 않아 조잡하다. 예를 들면 두릅나무와 드릅나무는 같은 종인데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릅나무는 80년, 드릅나무는 150년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삼나무, 편백, 리기다소나무 등 조림수종들은 제주도에 심은 지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150년생 이상으로 아무 소용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 교목 침엽수와 관목 침엽수는 뭉뚱그려서 150년, 또 별도로 침엽수 항목을 두어 80~200년으로 사족을 붙여 놓았다. 수종도 개비자나무, 종비나무 등 제주도에 분포하지도 않는 수종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제주도에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등 아열대성 나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재래굴 등 제주지역 특징 수종의 기준도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정된 것도 전도에 두 그루뿐이니 아쉬울 따름이다. 모법에 규정한 것처럼 보호수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 한라산 구상나무의 실태와 연구동향

글 / 김대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자원연구과장

구상나무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놀드수목원의 윌슨(Ernest Henry Wilson)이 한라산에서 수집한 기준표본과 지리산 일원 등에서 수집된 증거표본을 근거로 하여 신중으로 발표하였다. *Abies koreana*라는 구상나무의 학명도 이때부터 사용되어 왔다. 구상나무라는 국명은 앞의 배열 모양이 마치 성게처럼 생겨 제주어인 쿠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구상나무의 지역별 분포 면적도 단연 한라산 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어 한라산을 대표하는 식물로 인식되고 있다.







구상나무 열매

**한반도의 전나무속(屬)에는 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세 종류가 있다.**

전나무는 잎이 다른 두 종류보다 길고 끝이 살짝 갈라지며, 구과도 큰 편이어서 구분이 쉬운데,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는 구분이 어렵다. 구상나무가 신종으로 발표될 당시 분비나무에 비해 구과의 포가 뒤집어지는 점과 잎 단면을 보면 수지구가 중앙부에 위치하고 수피가 더 거친 점을 특징으로 하여 보고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지리산, 덕유산, 무등산, 가야산 등 한반도 남부지역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집단은 한라산에 분포하는 집단인데 그 면적은 연구자의 연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0ha 내외로 보고 있다. 백록담의 동북쪽 성판악 등산로와 관음사 등산로 일대에 대규모로 분포하

고 있고 영실, 백록샘 인근, 큰두레왓, 윗세오름 주변, 방아오름 주변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순림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낙엽활엽수와 혼재하거나 낙엽활엽수림에 자라는 경우도 있다.

구상나무는 한반도의 중부이남 고산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식물로 기후변화에 따라 고산지역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장기적인 보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구상나무를 비롯한 한라산 아고산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이 처해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000년 이전까지 구상나무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보면 대체로 분류학적인 연구와 생태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대부분이다. 구상나무를 포함한 전나무류의 유전적 변이와 유연관계에 대한 연구와 지역별 구상나무 집단의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들





구상나무의 주요 분포지인 한라산

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구상나무의 고사율은 10% 이하로 지금보다는 낮은 편이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점차 쇠퇴가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구상나무의 쇠퇴 원인으로는 태풍과 봄 가뭄, 각 개체에 대한 미기후 요인, 건조한 동절기 기후로 인한 수분스트레스 증가 혹은 그로 인한 수분 수지 불균형, 강풍에 따른 뿌리 흔들림, 집중 강수에 의한 토양유실, 겨울철 폭설 등의 복합적 작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제주도 전체 집단이나 한반도 전반에 대한 광역화된 연구에는 한계를 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 현상은 2000년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2년 이후부터 급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 이후에 나타난 구상나무의 심각한 고사현상을 살펴보

면, 한라산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실 지역과 북사면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고사현상은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지역적인 차이 외에도 해발고도가 증가할수록 구상나무의 밀도와 고사목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형 경사가 클수록 구상나무가 죽는 비율은 낮은 반면 경사가 작을수록 고사율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을 중심으로 볼 때 방위별, 지역별로 지형이나 기상 현상이 다르고 이에 따라 토양 같은 기반 환경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의 구상나무에 대한 연구는 과거와 달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각종 위성장비와 그동안 축적된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구상나무의 분포 예측과 쇠퇴 이후 재생 및 복원 모델을 개발





한라산 등반로 주변의 고사된 구상나무

하기 위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반응을 주기로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다양한 환경 인자에 대한 분석으로 구상나무 생육여건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외의 관련 연구들도 그 지역만이 가지는 토질, 강우량, 일사량, 지형 경사, 증발량 등의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생태연구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찾고 향후 지역에 맞는 복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라산 구상나무의 연구도 자생지의 질적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라 구상나무가 자라는 아고산지역의 토양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와 토양과 나무 간의 물, 양분의 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같은 물질순환에 대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고사 원인에 대한 해석이 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연구의 뒷받침을 위해서 우선 오래된 한라산 토양도의 재작성이 필요하며, 한라산 아고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원격탐사 기술을 적용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조성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 환경 · 사회통합 중심**

##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치형 모델 찾는다

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연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발』이라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서부터, 도의 주요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4월 30일, 「유엔 SDGs 2030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현안보고





성산일출봉

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앙과 지역의 추진실태 및 타 지역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 의제21’ 이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환경’ 중심의 교육 및 캠페인 등에 치중되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 제주미래비전(2016),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유엔 SDGs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행평가체계의 구체화와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가이드북을 인용하면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주의 경우도 지속가능정책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꾸려 주요 정책 및 지표 등을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우선순위, 이행계획의 구체화,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다시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갈등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는 첫째, 2019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



김녕리 해상풍력발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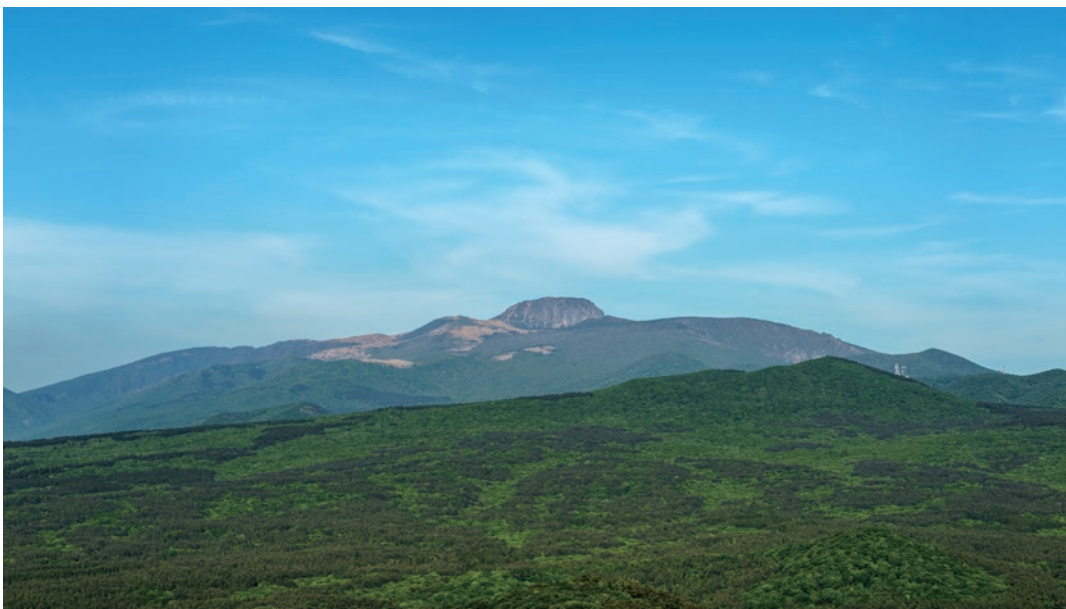
에 주력하고, 둘째,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셋째, 향후 SDGs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사후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운영모델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이며, 무엇보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지속가능발전 슬로건처럼 제주도민들이 함께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체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촉발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즉, 환경, 경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6~2030년까지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241개 지표를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우리정부도 지난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체계와 단계별 목표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 서울 SDGs 2030을 위한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를 정립하였고 올해 내 125개 지표체계의 완성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17개 목표, 62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 및 1단계(2018-2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홈페이지에 관련 지표의 추이를 공개해 오고 있다. 그 외 광주광역시, 수원시, 인천부평구, 충청남도 당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SDGs 수립과 이행을 추진 중이다.



한라산 전경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환경’과 ‘경제’양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청사진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의 소외 계층이 낙오하지 않도록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및 이행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주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또 이의 구체화, 내실화를 위해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인적 및 물적교류를 위한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과 세계의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공유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기로 했다.

이같은 결실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서 도출 됐다.

이번 제주 국제컨퍼런스에는 UNDP 관계자를 비롯 이탈리아 베니스 의회,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회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각국 관계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해

법네트워크 양수길 대표, 시티넷 비제이 자가니탄 총장, 전국 광역의회의장단 등 국내외전문가 및 지도자 다수가 참가했다.

참여자들은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은 지역에서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함을 강조하며,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 (Healthy Planet! From the Local)’라는 의제로 열린 예는 지방정부로서는 제주가 처음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환경, 경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6~2030년까지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241개 지표를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다.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 개회식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 시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환경’, ‘경제’양 측면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내외 소외계층이 낙오하지 않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미래세대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UNDP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7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다.

발레리 클리프 UNDP 아시아태평양담당부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제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꾀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국민, 미디어 등 민간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전 사회 통합적 접근법’을 수용해야 달성 가능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지화를 위한 전략으로 ‘4+1 Enablers’를 소개했다. 즉, ①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일관성 ②빅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 ③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 ④클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자원조달 시스템과, 마지막 ‘+1 Enabler’로 기술 및 사회혁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의 환경부와 협력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SDGs 달성 및 현지화를 위해 향후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더스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시티넷(CityNet)을 비롯한 한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일본 등 각국의 지방정부 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시티넷(CityNet)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하고자 1987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138개 도시·기관·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오염, 과잉 관광객 이슈 등에 대처하며, '새로운 녹색도시'를 추진하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전략과 태국 푸켓의 환경/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균형감이 잡힌 관광개발 정책으로의 전환, 중국 하이난성의 강력한 환경보호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순환경제, 디지털 기술혁명, 강력한 정치적 위임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등 여러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이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측정지표를 가지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제주 곶자왈 등과 같은 에코시스템 보존이 좋은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어진 국제세션에서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캠페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농촌지역사회를 살려가고 있는 교토부의 사회적농업모델 '산산야마시로' 사례, 중국 하이난성의 환경정책,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CF2030)' 프로젝트와 이탈리아 비영리단체 'We are here Venice'의 다양한 캠페인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내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과 제주형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제주 선언문 채택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양수길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SDGs의 본격적 이행이 아직 부진한 편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총체적 개혁 여건으로 삼아 범부처적 과제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하에 SDGs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의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간사역을 맡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진행내용 등이 소개되었다.

본 행사를 주관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와 리더스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지역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녹슬

지 않는 마음의 다리를 이어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자, 옹호자, 실행자, 그리고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첫째, 신속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둘째, 지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인증마크 부착 캠페인」전개, 셋째,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천적 규범력을 가지게 하는 한편, 넷째, 국내외 지방의회·정부, 시민단체 등과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통한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컨퍼런스를 준비한 진행자에 따르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상의 사소한 부분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플라스틱 생수병을 모두 치우고 진행했다고 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제주해안가 점령한 '파래', 해조류 권위자의 제언은?

글 / 박성우 제주의 소리 기자

파래 서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배출수를 내보낼 때 썰물 타이밍을 맞춰 배출한다면 외해와 순환되며 해양오염 문제가 줄어 들 것

**초록빛 파래가 점령하며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바다, 세계 해조류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제23차 국제해조류 심포지엄(International Seaweed Symposium, ISS2019) 셋째날을 맞은 5월 1일, 제주 곳곳의 해안가를 찾아 생태계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해조류 전문가들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변과 제주시 구좌읍 종달해변, 조천읍 신흥해변 등 제주섬 동쪽 연안에 번진 파래 서식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해당 지역은 해마다 수온





이 따뜻해지는 4~5월쯤 파래가 서식하며 굴치를 앓는 곳이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파래가 해변을 서서히 잠식하며 악취를 일으키고 미관을 해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멍갈파래'가 침투한 섭지코지 인근 신양 포구를 찾은 찰스 야리시(Charles Yarish)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해조류 생리와 생태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만(灣)' 형태의 지형, 그리고 농업·양식업 등 인근 지역 경제활동에 의해 파래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차량이 해안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해조류 서식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야리시 교수는 "해안가 안쪽으로 물이 고이게 되고, 수중의 질소 함유량이 많아

지면서 해양이 오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양식장의 배출수, 중산간에서 흘러내려 온 농약과 비료 성분의 민물이 고이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 **파래는 수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오염된 바다에 쉽게 해조류가 생기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자생된 파래가 아이러니하게도 해양 오염의 지표가 되는 셈이다.

아리시 교수는 "파래 서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배출수를 내보낼 때 썰물 타이밍을 맞춰 배출한다면 외해와 순환되며 해양오염 문제가 줄어든 것"이라고 제언을 건넸다.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지만 바깥 바다와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해외의 특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에 동석한 제주도 관계자는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제주바다를 살리는 것이 해양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공통된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성산을 신양 포구를 찾은 찰스 야리시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이 마을의 토양은 찰흙처럼 단단해  
제주에선 처음으로 풀무업(대장간)을 시작했다.  
낙천리는 아홉 개의 연못이 있어 ‘아홉굿마을’이라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고,  
천 개의 아름다운 의자들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제주올레 13코스가 지나는  
**한경면 낙천리**

글 / 박진주 작가  
사진 / 픽스스튜디오











interview

**'아홉굿'은 제주에서  
보기 드문 아홉 개의  
연못(굿)이 있다는  
뜻입니다.**



낙천리 조성식 이장

마을 인근에는 저지오름, 당산봉 등 크고 작은 오름들도 많다. 즐거울락(樂) 내 천(川), 이 두 글자가 만난 '낙천리'. 햇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낙천리 사무소에서 만난 조성식 이장은 무궁무진한 마을의 매력을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낙천리 아홉굿마을의 뜻이 궁금한데요?**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의 '아홉굿'은 제주에서 보기 드문 아홉 개의 연못(굿)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물이 귀하다 보니 사람이 마시는 물, 가축이 마시는 물, 빨래터, 목욕탕 등을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 1 아홉굿의자공원 입구에 있는 대형 의자
- 2 올레길 13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제주의 옛길
- 3 의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 4 낙천리를 방문한 관광객의 즐거운 포즈

**낙천리의 변신은 농촌테마마을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죠?**

네, 2003년도에 농촌테마마을에 지정됐는데요, 당시에는 주변에 관광코스가 없다 보니, 한 공공미술가께서 1,000개의 의자마을을 제안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편히 쉬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거죠. 당시 마을 청년회, 노인회 등 주민들과 의자 기술자 등이 1,000개의 의자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의자가 완성됐고요, 이후 전국적으로 홍보되면서 2011년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네티즌들에게 '의자 닉네임'을 공모 받았죠?**

네 맞습니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낙천리 의자에 이름을 붙여주겠다며 지원했죠, 이 중에서 1,000개를 뽑아 의자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었고요, 이중 100분은 '낙천리 공원' 선 포식에 초대받기도 했죠.

**낙천리는 농산물로도 그렇게 정평이 나있다고요?**

낙천리는 토양이 찰흙처럼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감귤,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미니 단호박 등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웃음). 지하수로 농업을 할 수 있게 돼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중인 마을 사업이 있나요?**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싶어요. 요즘 소비자들의 눈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만큼 낙천리 농산물은 신선하고 자신 있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식탁에 오르게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자마을이니 소품 의자 등을 만들어 판매, 소득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누구나 '놀멍, 고르멍, 쉬멍' 할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삼촌, 갈치 밥써  
잘도 크꼭 싱싱한거에  
막 맛조아 보이지 않암수과



문화와 예술이 있는 오감만족 전통시장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글 /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사진 / 픽스스튜디오

전통시장의 북적거림은 일상의 활력이 된다.

그 시장에서 상인들의 활기찬 삶의 단편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있는 걸 깨닫게 된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인심과 후한 정을 나누는 소통이 있는 곳, 서귀포매일올레시장으로 찾아가 본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전경



## 올레길을 걷다 만나는 시장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올레길 6코스가 시장 중앙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2010년도에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천정고가 높아 답답함이 없는 탁 트인 공간이다. 그리고 이곳 시장의 특이한 점은 중앙통로에 고객쉼터를 겸한 생태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쇼핑하다 잠시 쉬면서 먹거리를 먹거나 수조에서 노는 물고기를 구경할 수도 있다. 고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무척이나 신경 쓴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올레길걷기축제에 맞춰 올레시장올레축제가 열리고 있다.

야외공연장과 시장 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전통시장에서 올려 퍼지는 오페라, 흥겨운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 콘텐츠가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 1 랍스터 빵을 파는 인상 좋은 사장님
- 2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는 과일 집 사장님
- 3 중앙통로에 설치된 생태공간
- 4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 상인들과 눈 맞춤을 해보자 기분 좋은 소통의 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는 비좁은 통로를 카트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물건에 대해 물어보려 직원들과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다. 상인들과의 눈 맞춤과 즐거운 대화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흥정하며 기분 좋게 사고파는 경험은 마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의 우리들에게 분명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올듯싶다.

1+1이 실제로는 2개 가격이라는 대형마트의 상술에 상처받을 일 없이 덤으로 없어주는 인심은 당연한 일. 우리들의 오늘 저녁 밥상에 오를 찬거리를, 아님 군것질 거리를 사도 좋고 한치화 한 접시에 소주잔을 기울여도 좋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으로 찾아가 보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시장공영주차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54번길 35  
상인회 : 064-762-1949



이중섭의 작품이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다

마  
을

문  
화  
에

꽃  
을

피  
우  
다

## 김영수 도서관

글 /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사진 / 픽스스튜디오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지난 5월 31일 재개관한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에 들어서면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문구는 제주북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이자,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영수 선생의 말이다.







### 원도심의 동네 사랑방으로 재탄생 하다

김영수도서관은 1907년 제주관립 보통학교로 개교한 제주북 초등학교 내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 교육의 상징적인 학교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전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제주북초등학교 역시 이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 5월 31일 조용했던 제주북초등학교가 어느 순간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자처한 김영수도서관이 재개관했기 때문이다.

김영수도서관이 재개관할 수 있었던 건 제주북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주민, 전문가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민'의 중심엔 박희순 교장의 역할도 컸다.

그를 만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interview



제주북초등학교 박희순 교장

- 1 2층 서고 전경
- 2 2층으로 향하는 공간에 제주북초등학교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 3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4 도서관 곳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공간

### 김영수 선생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인은 제주북교 20회 졸업생으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기업인으로 성공했어요. 학교와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고인은 1968년, 어머니의 구순(九旬)을 기념해 제주북초에 도서관을 기증했습니다.

### 들어오자마자 현판이 눈에 띄네요.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고 김영수 동문께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어머니 구순을 맞아 기증한 거라, 처음엔 도서관을 효의 상징으로 할까 했었



도서관 1층은 참나무를 사용하여 한옥 스타일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어요. 그런데 “효의 도서관” 보다는 더 큰 의미가 고인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인의 모친께서 태극기를 재봉틀로 만들어 일제 강점기 내내 보관하게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소의 소신이나 나라 사랑 특히 제주사랑이 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와 미래를 잇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재개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984년 신규교사로 발령받은 곳으로 2017년 교장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모교같은 느낌이었죠. 정겨운 그 당시 생각이 많이 났고요. 특히 예전에 문화의 중심지였던 제주북초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생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 손 잡고 도서관 가는 마을 문화를 만든다면 예전의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도서관을 재개관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셨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요?**

김영수도서관이 있으니 마을과 함께 쓰는 것은 어떨겠냐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재개관까지 2년여 시간을 거치면서 꾸준한 협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이 학부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부모의 아이들이 졸업하면 지역주민이 되듯이, 도서관을 잘 아는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도서관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이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목관아지가 보이는 2층 책들 전경

**오늘 처음 왔는데, 도서관이 참 좋네요. 도서관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도서관 1층은 한옥방 4실(설문대할망방, 자청비방, 가문장아기방, 대별왕 소별왕방)과 계단형 복층 서가, 북카페로 꾸며졌습니다. 2층은 목관아의 전경이 펼쳐지는 정원형 서가인 '목관아가 보이는 책들', 책과 노니는 방'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권정우 건축가님과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님, 제주전통 창호를 만드셨던 장인분들이 정성을 쏟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들과 방문객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과 참나무의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살려 낸 시공을 통해서 도서관이라는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죠. 이러한 작품을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된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단지 도서관 기능만 하는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가족 책방, 책 보따리, 도서관 부모교실, 북 토크 · 콘서트, 원도심 문화학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언제든 오셔서 편히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쾌한 박희순 교장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영수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말미에 남겨둔다.

도서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데,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다.



SINCE 1981

## 대진횃집

물회는 이 집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 된장 베이스 국물을 살얼음으로 얼려 눈처럼 소복하게 담아낸다. 비주얼이 생경하지만 씹스럽고 구수한 제주식 물회의 국물 맛은 일품이다.

글 /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사진 / 픽스튜디오





제주시 탐동 광장을 끼고 있는 서부 두 방파제 초입에는 예전부터 바로 옆 항구를 드나드는 고깃배에서 싱싱한 활어를 공급받아 횃감을 내오는 횃집들이 많이 있었다. 대진횃집도 그 중에 한 곳으로 1981년부터 횃집을 시작하여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름엔 벤자리가 제철  
이죠. 제철 생선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참 수족관을 이리저리 살피며 생선을 고르고 있던 필자는 사장님의 '제철'이라는 한마디에 두말없이 벤자리로 횃감을 정하고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들어오는 곁들이 찬은 음식 하나하나 허투루 내지 않는 알찬 구성이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요리법을 전수해 주었다는 게 우뚝은 전복 특유의 진한 내장맛과 감칠맛의 조화가 입안을 즐겁게 만들고 있었다.

벤자리는 손질을 잘못할 경우 특유의 향이 날 수 있는데 사장님의 회 뜨는 솜씨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그런 기우가 사라졌다. 활어회의 쫄득하고 탱글한 식감을 제대로 살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 뜨기 기술 때문이라고, 식사와 끝 무렵 게우 볶음밥과 함께 나온 매운탕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고소한 게우 볶음밥 한술에 칼칼한 매운탕 국물은 따로 해장이 필요 없을 정도.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식당을 나서면서 타이틀만 내건 '대를 이은 맛집'이 아닌란 걸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오래도록 전통과 맛을 지켜 온 대진횃집이 앞으로도 계속 대를 이은 제주도의 횃집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올해 여름, 이곳 탐동 앞바다의 일몰이 아름다운 시간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 1 대진횃집의 게우뚝
- 2 회 한상 차림
- 3 여름이 제철인 자연산 벤자리회
- 4 2대째 경영하고 있는 광동영, 정유은 대표



# 결핍의 시간들이, 결국은 희망을 깨워주는 시간이었다

글 / 김신자 시인, 제주어보전회 연구위원

가쟁이마다 핀 붉은 장밋빛이  
더 진하다. 야네덜토 뻗어올르는  
생명으로 ㄱ득ㄱ득 찬 이섯다.  
마치 우리덜 젊음추록.



©제주시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모습' p.37

두릴 적 흑교서 보리방학 호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카시아 썸을 탕 하나씩 하나씩 톨아가멍 나흔차 중은중은 호엿던 기억이 싯다. ‘우리 어멍 아방 집에 싯저, 우리 어멍 아방 집에 웃저, 싯저, 웃저, 싯저, 웃저’ 구신에 홀리듯 들구 골악골악호당보민 아카시아 썸덜은 낙장불입, 낙장불입호멍 털어젼다. 보리 비는 ㄱ르에 탁 주르정 집고망에 어멍아방이 웃인 걸 번쩍 알멍도 수망일케 집이 셔시민 좋으켜 호던 인생의 갈림길. 아카시아 썸을 톨을 때마다 허천더레만 둔구정호였다. 보리방학은 무사 호염신디사 일호당보민 방학은 문 쫓나부는, 방학 님지 않는 방학. 두린 무심에도 나 인생이 진짜로 낙장불입인 것만 곱앗다. 생각호여보민 질을 일러불엇젠 머가 경 대수라시코. 일러불엇젠 헤메는 그 질도 문 질이랴던 것을.

비가 차작차작 누리는 놀, 나광 막 가근흔 벳 은숙이가 장시호는 점빵에 들런보난 태북이가 완 이섯다. “아이고, 태북아 어뎡호연 와져니? 요스인 한가헨?” “오게. 오날은 비오난 어멍 얼굴 보고정호연 왓저. 우리 어멍 좋아호는 파베기 도나수 사레 완 보난 엇인게. 은숙이가 나 미완 민작다 폴아분 생이여.” 태북이가 무녀 장난질호여가난 나도 지지안호젠 “이야, 태북이 오난 안보던 빵도 내놓고 귀흔차도 내여남신게. 이추록 사름 곱갈르멍 대접헤도 뉘는거라?” 호난 우리 싯은 어느 스이에 갈갈갈 엇날 이와기 소곶으로 풍당 빠젼다. 별경흔 비트차가 두릴 적 우리덜 눈곶





주를 닦은 듯 아픔을 진하게 우려내고 이섯다. 푹푹하고  
요망진 은숙이가 무녀 입을 열었다. “난이. 동싱털 보젠  
난 학교도 못 간 일 년을 끌어세. 우리 아방이 오닐부떠  
학교 가지 말렌한이 녀이 설루완 학교만 보내줍센  
하명 사흘을 밥도 안먹고 굶어가명 이문간이서 밤새  
낭 울었저. 경해도 우리 아방 77막 웃어라. 나 우티  
성은 6학년이라부난 학교 쉬기가 어중간하고  
아래 동싱털은 녀이 어려노난 중간인 나가  
문문하게 예기업겔 하여세. 예기업개만  
하민 좋아게. 어명아방 밋디 가불민  
주낙밥 출령 놔두저, 도세기  
것 주저, 빨레 하저, 집안 소지하저  
말도 말라게. 동네 벳덜이  
책보들렁 학교가가민 막 불루왕  
나도 가고정하연 막 울어났주.  
흔 번은 학교 강 녀이 공비하고  
정하연 예길 업은 냥 학교간  
적도 싶저. 요지금 생각하민  
어명 경살아져신디사 몰라.”  
눈이 짓벌겔하여지명 은숙이가  
굴아가난 나도 가심이 막 아프고  
태북이도 말웃이 차만 훌쩍훌쩍  
마셨다. “말도 말라게. 나 손  
보라게. 보리 탈곡하단 멩태  
기(탈곡기)에 손이 오꼳 들어간  
쥘라질 뻔 하여세. 소망일  
케 손이 안 그차지난 나가  
장겔 갓주. 손 그차먹어시  
민 우리 각시가 나신디  
시집와시키냐? 안죽도  
기쟁이에 굴아먹은  
페적이 남아이선  
어디가민 부치로왕  
이 손을 누계신데  
레 뵈우고정안하  
다게. 그 뻔 멩태  
기가 잘도 귀하  
여노난 물명진  
사름은 빌지도  
못하여서. 멩태  
기 춤예하  
쟁하민 멩태  
기 임제신디  
미릇에 강 수  
놔주곡 줄 상  
순번을 지들  
렸주.”  
“맞다게. 나  
도 보리 탈곡  
하는 놀, 녀  
이 조라완  
보리놀

요이서  
자단보  
난 밤중  
이 아무  
도 웃언  
막 시꺽  
하연  
울명시  
르멍  
집이  
와난  
기억도  
싶저  
게.”  
“아이  
고, 어  
마녀  
들라.  
지  
난번  
이  
봉수  
도  
무사  
안  
굴  
아냐?  
가  
네  
아  
방은  
일  
도  
잘  
안  
하  
곡  
기  
자  
술  
푸  
테  
라  
노  
난  
가  
이  
가  
문  
집  
안  
일  
을  
다  
하  
여  
세.  
보  
리  
탈  
곡  
하  
쟁  
하  
민  
순  
번  
지  
들  
리  
당  
밤  
열  
시  
넘  
영  
탈  
곡  
시  
작  
하  
민  
열  
두  
시  
가  
다  
뉘  
곡,  
언  
제  
민  
집  
이  
가  
고  
하  
명  
보  
리  
가  
멩  
이  
에  
걸  
터  
앗  
안  
꾸  
박  
꾸  
박  
줄  
앗  
젠  
하  
여  
라  
게.  
그  
때  
가  
가  
이  
5  
학  
년  
때  
아  
니  
가  
게.  
봉  
수  
도  
두  
린  
때  
고  
생  
하  
영  
헤  
나  
난  
지  
금  
도  
일  
하  
는  
게  
몸  
에  
부  
편  
부  
지  
란  
하  
여  
노  
난  
부  
제  
로  
살  
아  
무  
.”  
“기  
주  
게.  
벳  
덜  
광  
옛  
날  
말  
굴  
아  
가  
가  
난  
누  
계  
신  
디  
도  
안  
굴  
앗  
던  
이  
와  
일  
막  
하  
여  
졌  
저.”

흔  
곡  
지  
흔  
곡  
지  
들  
어  
가  
난  
가  
심  
이  
손  
콥  
에  
주  
옥  
주  
옥  
긋  
어  
지  
명  
헐  
리  
나  
는  
것  
굴  
앗  
다.  
경  
하  
민  
안  
뉘  
겔  
주  
만  
나  
데  
강  
이  
소  
콥  
이  
서  
확  
지  
와  
불  
고  
정  
하  
는  
삶  
의  
이  
멩  
을  
일  
깨  
와  
주  
는  
그  
겔  
핍  
의  
시  
간  
들  
이  
겔  
국  
은  
소  
랑  
이  
고  
희  
망  
이  
고  
삶  
의  
밑  
바  
탕  
이  
아  
니  
가.  
지  
금  
은  
문  
이  
벽  
덜  
자  
리  
에  
서  
당  
당  
하  
게  
부  
지  
란  
히  
살  
아  
가  
는  
나  
의  
벳  
은  
숙  
이,  
봉  
수,  
태  
북  
이.  
오  
닐  
뜨  
라  
점  
방  
에  
염  
담  
고  
망  
이  
서  
가  
쟁  
이  
마  
다  
핀  
붉  
은  
장  
밧  
밧  
이  
더  
진  
하  
다.  
야  
네  
덜  
도  
뻔  
어  
올  
르  
는  
생  
멩  
으로  
그  
득  
그  
득  
찬  
이  
섯  
다.  
마  
치  
우  
리  
덜  
젊  
음  
추  
록.  
부  
름  
이  
영  
비  
영  
만  
나  
는  
상  
쳐  
소  
콥  
이  
서  
장  
미  
꽃  
이  
지  
생  
멩  
을  
붉  
게  
피  
우  
듯  
이,  
우  
리  
덜  
도  
그  
에  
려  
운  
환  
경  
을  
흔  
디  
준  
더  
가  
명  
흔  
계  
단  
흔  
계  
단  
올  
를  
수  
이  
섯  
던  
것  
이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생생한 현장 이야기

## 의회는 지금

---

생활 속 조례

---

의정 모니터

---

현안 현장을 가다

---

청탁 금지법 Q&A

---

의정 칼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 난치질환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논하다.

가장 소외되고 있는 학생 중 난치질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등 15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2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하거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 교육감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조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도내 초중고 난치병 학생이 약 320명 가량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었지만, 향후 현재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활동비 수준인 약 300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제주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트리플 크라운’ 달성 기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3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주도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아동친화도시는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한다. 전국에 34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영진 의원은 “조례 제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도정에서는 아동전담조직 신설,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지침이 운영,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제주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까지 인증을 받는다면 복지제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미, 문종태, 강성민, 강성의, 양영식, 송창권, 오영희, 이상봉, 김정영, 홍명환, 조훈배, 강철남, 고태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꿈과 이상을 가진 멋진 미래의 주역

## 제7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3개 고등학교 학생 10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지역 현안 또는 청소년(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안건으로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5분자유발언을 제주어와 영어로 발표하며 기량을 펼쳤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의사진행 체험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체적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매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5분자유발언 제주어발표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영어발표를 운영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로 발돋움하였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제주의 현실을 그대로 알게 하고, 고민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자는 뜻이 있다”라며, 오늘의 체험을 통해 “꿈과 이상을 가진 멋진 미래의 주역, 제주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 경연대회 결과



### 단체상

| 구분  | 학교         |
|-----|------------|
| 최우수 | 서귀포고등학교    |
| 우수  | 신성여자고등학교   |
|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
| 장려  | 서귀포여자고등학교  |
|     | 영주고등학교     |

### 개인상(의원역)

| 구분  | 학교         | 성명  |
|-----|------------|-----|
| 최우수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 양현서 |
| 우수  | 서귀포고등학교    | 심정혁 |
|     | 삼성여자고등학교   | 정진경 |
|     | 오현고등학교     | 김지혁 |

### 개인상(의장역)

| 구분  | 학교       | 성명  |
|-----|----------|-----|
| 최우수 | 서귀포고등학교  | 김형주 |
| 우수  | 신성여자고등학교 | 조주원 |

### 개인상(5분자유발언)

| 구분  | 학교  | 성명            |
|-----|-----|---------------|
| 제주어 | 최우수 | 신성여자고등학교 이다희  |
|     | 우수  |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임서정 |
| 영어  | 최우수 | 오현고등학교 최진우    |
|     | 우수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김나현 |
|     |     | 삼성여자고등학교 서윤지  |

##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실질적 혜택과 선제적 농업정책 추진돼야 ” 애월읍 발작물 농가’ 생산자와의 간담회 개최

애월읍 발작물 생산농가들은 “정부나 제주도정에서 농가들에 실질적인 혜택과 각종 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현안·현장을 가다!’ 그 네 번째로 3월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농협 회의실에서 애월읍 발작물 생산농가와 애월·하귀농협 조합장, 김태석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제주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작물 생산농가의 시름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발작물(양배추, 브로콜리, 취나물)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농가-지역농협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 ‘민·관·군·의회’ 합동 해안변 파래수거 활동 총력 「현안·현장을 가다!-5」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5월 3일 「현안·현장을 가다!」 다섯 번째 행선지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가를 찾았다.

이날 물때에 맞춰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파래수거 작업에는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김경학·강철남·김장영·문경운·부공남·현길호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파래수거 현장 봉사 활동은 수년째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을 비롯하여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해안 등을 뒤덮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 그리고 어촌계와 어민의 고충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태석 의장은 “오늘 파래수거 활동을 벌이면서 현장 상황을 보니 어민들의 고충을 몸소 느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더 심각해지고 있다니 걱정이다. 어촌계와 어민의 고통에 더 이상 손 놓지 않겠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원인과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청탁 금지법 Q & A

### 징병검사 · 부대배속 등 관련 부정청탁

**Q**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오고 싶어 하는 제주도!  
타인의 시전으로는 '휴양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 또다시 건강제주, 장수제주를 꿈꾸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숫자로 환산된 도민들의 건강수준은 예상과는 다르다.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팀의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건강지수는 1점 만점에 0.514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의 현실에서는 '건강제주, 장수제주'로 스스로 인식했던 모습이 허상은 아니었는지 되묻게 된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보건 의료 상황은 더욱 녹록치가 않다. 아프면 어떻게든 소위 서울의 '빅5'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찾지 못해 제주시 대형병원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순 없지만, '건강 제주'를 도정의 주요 지표로 삼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 벽걸이 전사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건강한 장수사회를 꿈꾼다고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보건 분야 예산은 고작 1.31%와 1.25%에 불과하며, 제주도정의 보건행정조직은 전국에서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1개과에 머물러

있는 체계가 반복되고 있다.

건강제주·장수제주의 시작은 공공의 영역에서 조직, 예산,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행정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도민들의 건강한 삶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주건강 2030계획을 다시 꺼내 점검하여 건강제주, 장수제주의 비전과 플랜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른 지방 정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 건강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가칭 '도민건강국'을 만들어 실천적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1000억원, 전기차에 1000억원 투입했던 것과 비례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편성하고, 투자해야 한다.

건강·장수제주는 단순히 오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질병예방과 관리를 통해 노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어렵지 않게 해내고 사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휴양 1번지 제주에서 자유로이 앞마당을 거닐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 건강제주, 장수제주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도박 경향이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게임을 넘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

## 제주, 청소년 도박천국의 오명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



주부도박단, 조직 폭력배 연루 불법 도박장 적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0대 절도 등등, 잇을 만하면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내용들을 뛰어 넘어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제주가 청소년 도박천국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박관리센터의 2018년 도박관련 표본조사 결과, 도내 청소년의 14.1%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000명 중의 1.3%인 287명이 도박 경험이 있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8%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박에 쓴 돈이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의 도박 경향이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게임을 넘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 도박에 쓴 돈이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고학년이 갈수록 돈을 빌려서 사이버 도박에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져, 결국 학교 폭력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해매체를 접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유해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게임중독을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 술이나 마약중독처럼 성장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학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 도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조기 차단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청소년만의 공간도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예방교육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도박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빠를수록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주가 청소년 도박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여름철 건강과 한의학

글 / 김성은 김성은한의원 원장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해가 갈수록 여름이 빨라지고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탓하기도 하지만 우리들 일반 시민이야 어서 빨리 무사히 더위가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지요.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 위한 한의학적 방법을 소개합니다.



**너무 덥다고 찬 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름에 더위를 탄다고 하기도 하고 더위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더운 데서 오래 일을 하거나 직사광선을 오래 쬘수록 몸이 체온조절 능력을 잃어버려 생기는 질병으로 열사병,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중서병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입이 마르며 얼굴이 때가 낀 것처럼 윤기가 없습니다. 몹시 갈증이 나고 몸이 무거워 기운이 없으며 오한이 있거나 두통, 설사가 생기는 것들이 중서병의 증상입니다. 충분히 쉬어 주고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서병은 여름이 끝나고 서늘해지면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는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여름이 되면 특별히 더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중서병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여름에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오래전 생긴 중서병이 치료되지 않고 여름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증상이 오래된 경우는 반드시 한의원을 방문하여 적당한 처방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생맥산(인삼, 맥문동, 오미자)이라는 처방을 쓰기도 하는데 처방이 간단하여 여름철 음료수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주하병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 하는 냉방병과 유사한 질병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 의욕이 없고 몸에 열기 나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어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에 반응하여 외부의 피부는 더워지고 내부의 소화관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때 덥다고 얼음 넣은 찬 음료수나 빙수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미 차가워진 소화관은 더 차가워지게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도 안되고 입맛도 잃게 되고 심한 경우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덥다고 찬 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삼계탕입니다.

흔히 이열치열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차가워진 소화관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름에는 야외활동 시 갈증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고, 햇빛 아래서 너무 오래 활동하지 말며, 반대로 너무 찬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언제나 적당한 것이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이번 여름도 한의학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정방하폭(正房夏瀑)

천지연, 천제연과 더불어 제주도 내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정방폭포는 서귀포시 중심가에서 약 1.5km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명승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높이 23m, 폭 8m, 깊이 5m에 이른다. 예로부터 이곳을 정방하폭(正房夏瀑)이라 하여 영주십경의 하나로 삼았다. 낙하수의 물보라에 의한 무지개와 인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아래 그림을 보고, 오른쪽의 그림에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의 창의적 솜씨를 발휘하면서, 제주의 맛을 잠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도구와 재료 : 펜, 붓, 색연필, 파스텔, 크레파스, 크레용, 수채물감, 아크릴칼라, 연필 등 사용 가능

고재만  
 화가, 미술교육가  
 한국미술협회제주지회원  
 그린센드아트회 회장  
 (사)제주어 보전회 회원



고재만 작 (캔트지에 라이너펜과 수채, 35 x 24.5cm)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원고,  
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소망 등을 담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클릭뉴스에 게재됩니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메일 : redlight17@korea.kr  
전화 : 064-741-2285(클릭뉴스 담당자)



설문대 할망이 땅따먹기를 하며 그려 놓은 듯한 밭들과 공기놀이를 던져 놓은 듯한 섬과 오름들! 많이 보아온 풍경이지만 또다시 입이 벌어지고야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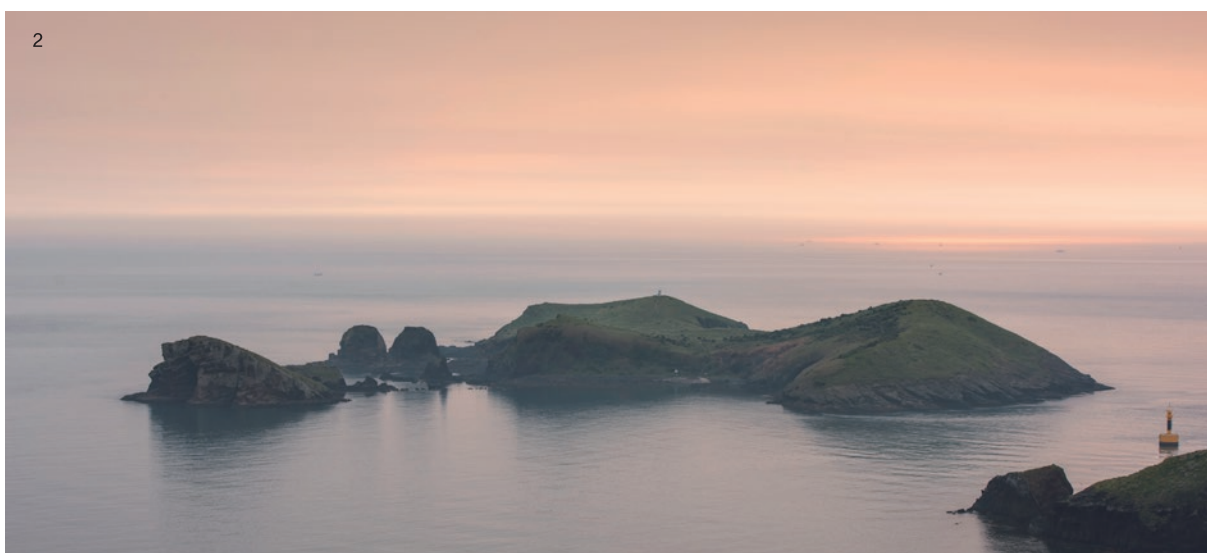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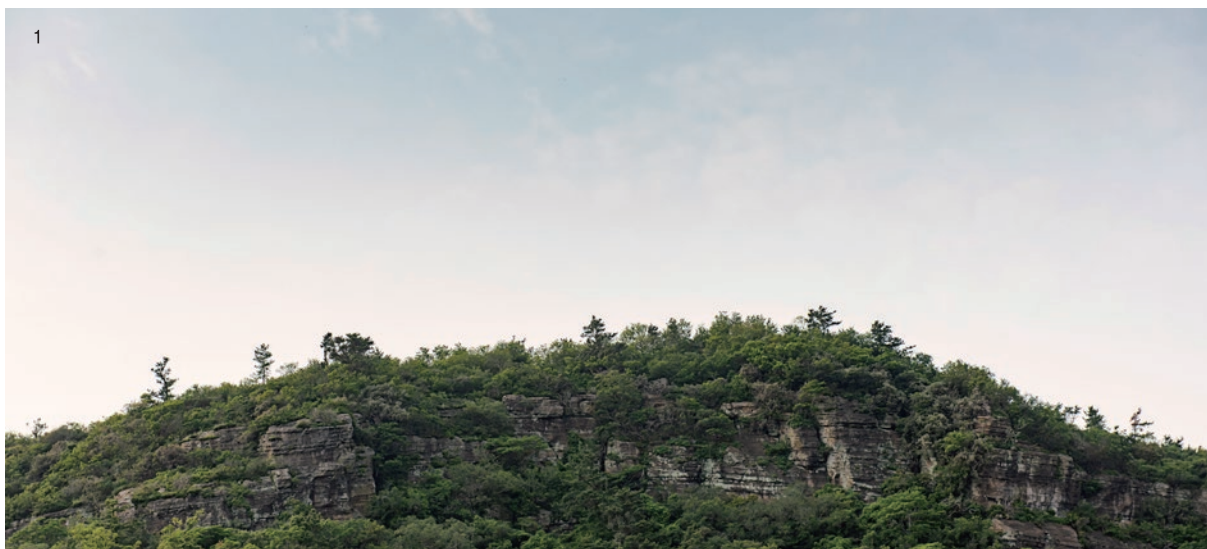


오르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 당산봉

글 / 한원표 작가  
사진 / 픽스스튜디오





**제주라는 섬에 대한 각각의 생각은 굳이 찾아가 묻지 않아도  
누구든 몇 가지의 예쁜 단어들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간만에 찾아온 휴일에 이제는 몸과 하나라 느껴지는 편안한 소  
파에 누워 다리를 흔들어 대다가 문득 바다와 오름이 그리워졌  
다. 어느 도시인의 삶과 딱 다르지도 않은 이곳의 삶에도 오름  
과 바다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쉬는 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것도 현지인의 장점이 아니던가.

산이 내게 오지는 않을 테니 내가 가기로 생각하고 가벼운 복  
장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를 정하는 방법  
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오름과 바다가 있을 것. 친한 지인의 추

- 1 겹겹이 쌓여 온 지층
- 2 정상에서 보이는 차귀도의 풍광
- 3 수월봉 쪽으로 바라본 풍광





천을 받을 것. 이 두 가지가 합치된 곳이 바로 '당산봉'이었다. 제주 시내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차로 이동하면 되는 곳이다. 커피를 한잔 사고 고산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기분 좋은 제주의 초여름과 함께 짧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당산봉을 오른쪽에 끼고돌며 먼 곳에서 보고 있자니 역시 풍문이 아깝지 않은 오름이었다. 도착하여 물과 카메라를 챙기고 이정표와 설명을 읽어본다. 두 번 읽자!

###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는 이를 브랜딩하여 지질트레일 코스들을 만들었다.**

당산봉은 수월봉 지질트레일 B코스에 속해있는 곳이다. 수중에서 시작된 화산 폭발이 분화구 내부의 또 다른 분화구로 만들어진 알봉으로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며 다양한 지층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오름의 옆구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땅의 속살이 보인다. 화가가 스윽하고 붓 칠을 한 느낌이 드는 모양새다. 역시 나오길 잘 했다는 생각과 함께 초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녹음이 우거진 탐방로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자니 가벼운 차림의 동네주민 분들이 보인다. 오름은 동네 주민들에게는 산책로 정도로 친근한 곳일 것이다. 올레길과 오름을 오르다 마주치는 분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작은 미덕이다.

얼마 정도 오르자니 15분 정도의 가벼운 동산이라고 말했던 지인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거운 사진 장비

욕심을 낸 내 잘못이건만,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숨을 헐떡이다 보니 당산봉의 중간 어귀에 도착하였다.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보니 원망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풍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왼편의 수월봉과 오른 편의 차귀도! 더 높은 곳으로의 걸음을 인도하는 고양감이 지친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소리가 들려오는 오솔길과 숲길을 걸어 걸어 도착한 정상은 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제격이었다. 설문대 할망이 땅따먹기를 하며 그려 놓은 듯한 밭들과 공기놀이를 던져 놓은 듯한 섬과 오름들! 많이 보아온 풍경이지만 또다시 입이 벌어지고야 만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욱 둘러보니 산방산, 수월봉, 차귀도, 풍력발전단지, 생이기정, 거북바위, 어선들이 보인다.

느즈막한 오후 산행 덕분에 노을 저 가는 마법 같은 시간과 색 깔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에 갈무리하듯 담아본다. 크게 숨을 쉬어본 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리막을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아오기 위해 떠나고, 내려가기 위해 올라간다. 그 반환점에서 우리들은 각각 어떤 것들을 담고 오는 것일까? 번거롭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의 어느 부분에서 떠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주에서 산다는 것도, 그 어디에서 산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어느 초여름의 짧은 여행을 마치며 인사를 건넨다.

안녕? 당산봉. 안녕? 인생!

# 모빌리티 대폭발 (Mobility Big Bang)과 이동의 미래

글 / 이용재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운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인식을 시작했  
다는 것이다.**

'캄브리아 대폭발(Cambrian Explosion)'은 지구의 역사에서 고생대에 발생했다. 캄브리아 대폭발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100만 년 전에서 4억 8,500만 년 전까지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때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들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지질학적 대사건을 말한다. '종의 기원'을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진화를 주장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조차도 엄청난 종(種)의 종류와 진화의 속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다윈의 딜레마(Darwin's Dilemma)'라고까지 불렸던 사건이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캄브리아 대폭발' 같은 지구적 현상이 '모빌리티 대폭발(Mobility Big Bang)'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빌리티(Mobility)'란 이동의 수단 혹은 이동의 방식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모빌리티를 변화시킬 핵심기술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의 변화 즉, 자율주행이고, 둘째는 '차량을 소유하는 방식'의 변화 즉, '차량공유'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고 제어하여 주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의 자동차공학회(SAE)에서는 운전자의 손(조향), 발(가감속), 눈(조향)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의 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8년 12월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화한 택시 '웨이모 원'은 등급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까지 전용노선버스, 도심버스에 등급 5단계 완전자율주행을 도입할 계획이고, 2030년까지 일반차량에도 완전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모바일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직접 연결해 주는 이동서비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으로 양분되던 여객서비스 시장이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제는 개인교통, 공유교통, 대중교통으로 삼분하게 된다. 공유교통 플랫폼은 화물운송은 물론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의 장점과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이동서비스, 즉 택배, 드론택시, 복합수송, 금융 등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도약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차량공유’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시·공간의 point-to-point 연결이다. 지점간의 직접 연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을 공간적으로는 확대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 기술들은 현재의 도시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의 소모는 최소로 하고 편리함은 배가시키되 비용은 저렴하게 하려는 모빌리티 변화도 목격된다. 인간이 창조한 발명품중 자동차만큼 편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은 승용차의 형태로 우선 보급될 것이다.

‘자율주행’과 ‘차량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필수적이다. 각종 센서를 비롯하여 빅데이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인터넷과 컴퓨터 등 빠른 통신기술 등이 필요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은 기존의 산업보다 공간과 자본의 투입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적합하다. 특히 모빌리티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복지, 문화, 보건의료, 주거 등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이고 편리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는 모빌리티 변화는 자연스럽게 도시화를 촉진시켜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며, 승용차의 보급을 확대시켜 대중교통의 의존도를 약화시키게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적합한 모빌리티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와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다. 모빌리티 변화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동을 위한 경제 제비용의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공유경제에 의한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도 현재의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될 공유차량의 대부분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소유가 될 것이고 기업의 경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수요자는 더 이상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가입과 주차장확보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게 된다. 모빌리티 변화에 따라, 경제적 가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소비자 중심적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지향 사업모델로부터 점점 더 많은 파생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수송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현은 현재의 자동차산업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모빌리티 대폭발’을 대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와 전기/수소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의 지속적인 정비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빌리티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의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은 전적으로 이들 인프라의 관리수준에 달렸다. 환승센터, 도로, 고속도로, 공공 주차장 등 부속시설물은 승객들이 점점 더 많은 복합수송을 기대함에 따라 더욱 상호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모빌리티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통신, 보안,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한다.

‘캠브리아 대폭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환경적, 발생학적, 생태학적인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다. 산소 농도의 증가, 해수의 칼슘 농도의 증가, 생물 유전자의 돌연변이, 먹이 사슬의 변화 등 아마도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티 대폭발도 무인자동차화, 정보지능화, 공유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요인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지역간 양극화, 산업구조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운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인식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 1.5인분의 여행

글 / 김민정 여행 작가

절친이 제주에 놀러 왔다. 여기 사는 친구의 본분으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는데 한사코 뒀단다. 관촬단다. 다분히 혼자 여행하고 싶어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 한다. 나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으므로 존중해주기로 했다. 잠자코 그녀의 여행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떠나기 직전 만났다.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좋았다. 친구의 제주 여행 후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못내 설□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딜 갔고 무얼 먹었고 어떤 걸 느꼈고, 하는 얘길 듣는 게 무척이나 즐겁다. 언젠가 저녁 자리에서 지인의 지인으로 합류한 사람에게 장편소설 급의 기행문을 듣느라 밤이 깊어 버려 다음날 어지간히 고생한 적도 있다. 일상의 리듬을 깨고 탐미할 만한 일이다, 내겐.

##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어땠어?”

“그게, 나는 내가 혼행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닌 것 같아. 혼자 다니면 외롭고 중간에 친구 만나 비자림 걸었는데 ‘내가 수

다 떨려고 멀리까지 왔나’ 싶은 거 있지.”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다는 말, 비단 결혼이나 연애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 보다. 여행에도 통하나 보다. 나 역시 혼자 다닐 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싶다가도, 정작 동행인이 있으면 눈앞의 풍경에 집중하지 못해 다시 와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아니 그게 무엇이든 관계가 얹히면 이쪽도 저쪽도 명쾌하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제주도는 참 좋아.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심지어 냄새도 특별해.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가 봐. 아예 짐 싸서 내려와 살기도 하고, 너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슬퍼졌는데 친구가 말한 제주도의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6년째 운영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블로그에 초창기 제주 생활기를 써서 올리곤 했는데 그 토막글들에선 분명 내가 제주도의 ‘냄새’를 맡고



제주도는 참 좋아.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심지어 냄새도 특별해.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가 봐



있음을, 하물며 좋아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여행자에서 생활자로 옮겨가는 과정이리라.

대화의 끝, 친구는 “그치만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 충분해!”라고 말했고, 나는 “아닐걸. 오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날걸. 그리고 머지않아 또 오게 될걸.”하고 답해주었다.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책 <보노보노의 인생상담>에서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혼자 있는 것은 그냥 걷는 것에,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은 경치를 보며 걷는 것에 비유한다. 제주에서는 하늘이, 바람이, 숲이, 바다가 벗이 되어주기에 꼭 둘이 아니어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감상에 젖어 들 수 있다. 말하자면 ‘1.5인분의 여행’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뉴 어스 컬러(earth color)’가 트렌드라 한다. 나무색, 흙색 같은 자연의 색을 뜻하는데 옷부터 가방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에도 곧잘 쓰인다. 거칠게 말하면 잿빛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일부

러 자연의 색을 찾아서 곁에 둔다는 의미일 테다. 제주에서는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지구의 색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언제고 누릴 수 있음은 축복이자, 언제까지고 지켜야 함은 의무다. 얘기가 잠깐 새는 듯한데, 어쨌든 그게 바로 나의 ‘믿는 구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돌아온 날 밤 자려고 누웠더니 글썽 제주도가 그림더란다. 그래서 찍어둔 사진을 어루만지다 잠들었다.

### 거봐, 제주도가 그런 곳이야!

괜히 뿌듯한 기분이 됐다. 생활자로 물들어 가고 있는 지금, 비록 여행자로서의 축수는 잃어가지만 그 나름대로의 익숙한 행복감이 있다.







제주를 닮아가는 작가

## 배중열



**저희의 그림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집과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삶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주는 다양한 변화가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많은 사람은 여전히 '타지에서의 정착'을 꿈꾼다.

배중열 작가도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긴 이 중 한 명이다. 실 새 없이 흘러가는 서울 생활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그곳과 대비되는 제주의 여유로움에 매료된 작가는 '특별한 그림'을 그려내고 싶다는 꿈 하나로 삶의 터전을 제주로 옮겼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소박한 동네 사이사

이. 이름 모를 야생화로 가득한 숲길을 걷는 제주에서의 일상은 작가의 시선과 내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별한 그림'이라는 것은 제주에서 만나는 우연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여유롭고 느긋한 곳이기엔 작은 일상조차도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는 곳. 그것이 곧 작가가 캔버스에 표현하고자 했던 제주의 본질 이었다.

작가의 시선은 제주는 낮은 지붕의 돌집들. 그 위로 빛나는 별 하늘과 골목 사이사이 숨어있는 조그만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마치 동화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 안에서 소소하지만 특별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껴본다.



배중열, 고을 부부 작가가 운영하는 '제주 종이가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실크스크린 강자와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강 문의 : bjl123456@naver.com







9 772671 727005



ISSN 2671-1271

92



2019 여름 제23호  
DREAM JEJU 21

에메랄드 빛  
하늘을  
시루어 나르며  
제주 바다가 전하는  
여름 메시지  
우리 그리고 나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